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관
망

[1 ~ 3] 다음은 교내 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대표 : 내년도 급식 업체 선정에 총 3곳의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 주셨는데, 제안서를 평가해 보니 이번에도 대표님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교 급식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그런 만큼 급식 단가가 조정 가능하다면 대표님 업체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급식 계획에 큰 변동이 없는데, 급식 단가의 15% 인상을 요구하신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대표 : 말씀하신 점은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 저희가 제안한 15%의 인상안에는 식자재 공급 가격 인상 요인 8%, 인건비 인상 요인 5%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개 학급이 감축되어 급식 총 인원도 감소할 텐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식 단가의 15% 인상에도 동의해 주신다면,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85% 수준으로 높여서 공급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 :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높여서 공급하신다는 점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안서에 밝히신 대로라면 점심과 저녁을 모두 먹는 학생의 경우 연간 20만 원 이상의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체 측에서 요구하신 1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메뉴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급식 메뉴를 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식 단가 인상률을 조정하고 난 뒤에 이어서 급식 메뉴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A] **학부모 대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대표 : 네. 좋습니다.

학교 대표 : 다시 급식비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학부모님들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업체 측의 제안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단가의 10%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그렇다면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전체 급식량의 10%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인당 급식량을 5% 정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원하는 반찬은 자유롭게 더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해 보겠습니다. ㉢ 이 점에 동의해 주신다면 원래 제안드렸던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단가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 : 결국 학생들의 급식량은 줄이면서도 급식 단가는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다면 급식비 10% 인상에 동의해 드리는 대신, 매주 1회 별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대표 : 별식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저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기에 학부모 대표님 요구를 수용하고 싶습니다만, 비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말씀하신 요구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대표 :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다면 별식 대신 주 2회 정도 요구르트나 제철 과일 등의 간식을 추가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체 대표 : 그 정도면 저희가 다른 부분의 비용을 절감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부모 대표 : 네. 별식 제공은 어렵다고 하시니, 간식을 추가 제공해 주시는 조건으로 급식 단가 10% 인상에 합의하겠습니다.

1. 협상 참여자의 협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원만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 :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들어 제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로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고 있다.
- ④ ㉣ :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 ⑤ ㉤ :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2. [A]에서 업체 대표가 사용한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전략
- ② 제안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
- ③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을 무시하여 갈등을 덮어 버리는 전략
- ④ 중요도를 고려하여 협상 쟁점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전략
- 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안을 이끌어 내는 전략

3. <보기>는 위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업체 대표	㉠ 급식 단가를 15% 인상한다. ㉡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85% 수준으로 높인다. ㉢ 1인당 급식량을 5% 줄인다.
학교 대표	㉣ 급식 단가를 10% 인상한다. ㉤ 주 2회 간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학부모 대표	㉥ 급식 메뉴를 조정한다. ㉦ 주 1회 별식을 제공한다.

- ① ㉠과 ㉤은 협상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제안이다.
- ② ㉡는 ㉠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업체 대표의 제안이다.
- ③ ㉢은 ㉣을 수용하기 위한 업체 대표의 제안이다.
- ④ ㉤은 ㉤에 대한 학교 대표의 대안이다.
- ⑤ ㉥은 ㉣을 수용하기 위한 학부모 대표의 제안이다.

[4 ~ 5] 다음은 도서부원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국 :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3학년 부원들의 생각을 모으라고 하시네. 선생님께서 도서부 의견서를 제출하실 건가 봐.

유준 : 지난 번 그 얘기구나. 나는 찬성!

철호 :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 나는 반대! 다수결이니까, 반장 마음대로 해.

인국 : 이 친구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서로 말해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지. 내 표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 (철호의 책을 접으며) 두 분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철호 : 우리 학교 학생들만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구? 우리 능력이 그 정도가 돼?

유준 :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면 관리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행복동 주민이잖아. 졸업하면 책 빌려볼 데가 없어서 아쉬울 텐데, 안 그래?

철호 :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따로 지어야지. 학교 개방했다가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찌려고 그래? 꼬맹이들도 몰려올 거 아냐?

유준 : ㉢ 그래, 철호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들이 학교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 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것 같아.

철호 : 그 난장판 가운데 공부가 잘도 되겠다!

인국 : 너희들 말을 들어 보니,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노트를 꺼내 적는다.) 일단 주민들과 공동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

유준 : 우리 학교 안에서 책 빌려가는 거야 지금 도서실 컴퓨터로도 되지만,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 (인국의 노트를 건네받아 적는다.)

철호 :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이나?

인국 : 물론 그렇겠지..... 음, 이 정도면 우리 도서부 의견이 정리된 거 같아. 찬성으로 말이야.

철호 : ㉣ (놀란 표정으로 인국을 바라보며) 뭐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

인국 : 유준이한테 설득당한 거지.

철호 : 예잇, 그럼 나도. (노트를 당겨와 적으며)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 이걸 분명히 해야 해.

유준 : 응? ㉤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철호 :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야. 내가 귀찮은 건 좀 싫어해도, 마음은 열려 있거든.

인국 : 고맙다. 너희들은 최고의 친구야. 이렇게 ㉥ 의견서를 제출할게.

4. 위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단호한 의사 표현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 : 말투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 ③ ㉢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고 있다.
- ④ ㉣ :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⑤ ㉣ :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5. <보기>는 ㉠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서부원들의 대화로 보아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의견서

도서부 3학년 김철호, 민유준, 우인국

저희 도서부 3학년들은 행복동 주민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는 도서관 개방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학교에 들어오는 주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
 - 2)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 ㉢
2. 도서관 공동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주민 대표와 도서관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모색 ㉣
 - 2) 도서 대출 관리 컴퓨터 추가 확보 ㉠
 - 3) 재학생 이용 우선권 부여 ㉣

저희들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 ~ 8]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1 >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수업 시간에 동영상 시청하고, 같은 화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 쓰기
- 동영상의 내용 : 민간 병원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수립한 논지 방향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 촉구
- 논설문 작성 시 유의 사항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신이 쓰는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글을 쓴다.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되, 반대 입장이나 비판까지 고려한다.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를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관련된 개념은 그 뜻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한다. 글의 처음 부분에서 논의의 배경과 목적 등을 밝히고, 중간 부분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며, 글의 끝 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활용할 자료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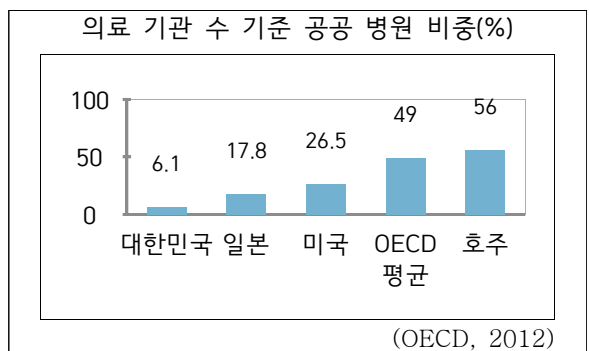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 간 민간 병원의 증가로 의료 인프라는 대폭 확충되었지만, 공공 보건 의료는 오히려 후퇴했다. 효율성이나 수익성 같은 측면만이 강조되어 공공 병원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 보건 의료의 부담이 커져야 할 의료 사각지대의 관리에 허점이 생김으로써 국민의 건강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가까운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워지거나,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 통계 자료

의료 기관 접근성 인구 취약 비율*(%)

구분	종합 병원	산부인과	응급실
기준 시간	90분	60분	30분
○○특별시	0.0	0.0	0.0
○○광역시	0.0	0.0	0.0
○○시	15.5	38.7	18.3
○○군	99.9	100.0	98.6

(○○연구원, 2013)



< 보기 2 >

- | | |
|-------------------------|---|
| 1. 서론 | ㉠ |
| 2.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 |
| -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 ㉡ |
| - 의료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점 | ㉢ |
| 3.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 ㉣ |
| 4. 결론 | |

6. <보기 1>의 '작문 상황'에 주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료 사각지대', '의료 공공성' 등의 용어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한다.
- ②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들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③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논거를 마련한다.
- ④ 글의 종류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화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신의 주장과 관점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서술하되, 언어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하여 논거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한다.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수업 시간에 시청한 동영상 내용을 활용하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임을 밝혀야겠어.
- ② ㉠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해야겠어.
- ③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의료 기관의 지역 쏠림 현상과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이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됨을 지적해야겠어.
- ④ ㉢에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선진국에 비해 공공 병원의 비중은 작지만 과거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⑤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병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 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8. <보기 1>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에 들어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병원의 활성화 방안 제안
- ② 현실 상황에 비추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 제시
- ③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자율 경쟁을 통한 보건 의료 기관의 경쟁력 확보 촉구
- ④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전국민의 건강 안전망이 확보된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 제시
- ⑤ 공공 의료 기관의 확충으로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 갈등이 해소됨을 강조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부여 과제 :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주제로 논설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

※ 학생의 글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타인의 글을 따오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표절을 한다. 가일층 심각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표절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표절 행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절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실수이든 의도적 행위이든 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절 방지를 위한 작지만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한 운동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표절 방지 캠페인을 펼쳐 표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 보자. 표절은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펼친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 ③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한다.
- ④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⑤ 자신의 체험을 일반화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10. <보기>는 ‘학생의 글’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다듬기 위해 세운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글 쓰느라고 고생 많았어.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먼저,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두 부분에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결말 부분에 주요 내용을 요약한 후 독자의 동참을 촉구해 봐. 또한, 표절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가해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해. 끝으로, 예상 독자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해.

- ① ‘추호’, ‘가일층’, ‘무관용’ 같은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자.
- ② ‘표절 방지 운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와 같은 제목을 붙이자.
- ③ 서두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표적인 표절 사건을 언급하자.
- ④ 인터넷 보급률과 표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추가하자.
-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자.

11. <보기>의 한글 맞춤법에 관한 자료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8항 용언들의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

-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예)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예) 낫다 : 나아, 나오니, 나았다
- ⋮
-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예)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예) 가르다 : 갈라, 갈랐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예) 떡이, 같이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① ‘물을 여기에 부어라’의 ‘부어라’는 어간 ‘붓-’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② ‘그만 좀 간질여라’의 ‘간질여라’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③ ‘십 리는 좋이 되겠다’의 ‘좋이’는 어간 ‘좋-’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④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의 ‘게으름’은 어간 ‘게으르-’에 접미사 ‘-ㅁ’이 결합해 명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⑤ ‘앞으로 자주 보자’의 ‘자주’는 어간 ‘자주-’에 접미사 ‘-우’가 결합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1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 차례입니다. ‘역마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 아니에요, 선생님. ㉣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 네, 할아버지께서는 ㉤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셔요.

-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뵙다’를 활용하여 ‘뵙’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 ‘탈락’, 없던 소리가 끼어드는 ㉣ ‘첨가’가 있다.

— < 보기 2 > —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받침 ‘ㅎ(ㄸ, ㅊ)’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4. ‘ㅎ(ㄸ, ㅊ)’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① 제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빛다[빔따]’를 들 수 있다.
 ② 제11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닭[닥]’을 들 수 있다.
 ③ 제12항의 ‘1’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얹던[안턴]’을 들 수 있다.
 ④ 제12항의 ‘4’는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낳은[나은]’을 들 수 있다.
 ⑤ 제2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한여름[한녀름]’을 들 수 있다.

14.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 붙잡혔어요.

아버지 : 오늘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 못 했어요.

아버지 :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8.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함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0.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론』을 통해 현대 영미 윤리학계에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진 사회철학자 롤즈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온 공리주의가 소수자 및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약론적 토대 하에 대안적 정의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개인이 정의로운 제도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 임금과 재산, 권한과 기회 등이 필요하며, 이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리들을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 ‘원초적 상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원초적 상황’은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선택하는 합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가설적 상황으로, 이들은 향후 헌법과 하위 규범들이 따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합의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계층, 성, 인종 그리고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 취향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 ‘무지의 베일’이라고 한다. 단, 합의 당사자들은 인간의 심리, 본성 등에 대한 지식, 제도의 영향력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고 있으며, 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롤즈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지의 베일을 벗은 후에 겪을지 모를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원초적 상황을 전제로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개인들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를 ‘자유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롤즈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양심과 사고 표현의 자유, 연합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적 공간 및 거주와 개인적 재산에 대한 권리, 법치를 받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제2원칙이다.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직책이나 직위와 관련하여 동등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가정이나 계층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낮은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차등의 원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통해서라도 최대의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현실적으로 정의의 원칙들이 선택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사적 재산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고, 최소 수혜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롤즈의 정의론은 보다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윤리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지평을 넓힌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21.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밑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 순위
- ② 롤즈의 ‘정의론’의 한계와 의의
- ③ 롤즈의 ‘정의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 ④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
- ⑤ 정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 이유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에서 정의의 제1, 2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② 롤즈는 ㉠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을 제시하였다.
- ③ 롤즈는 ㉡ 상태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④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겪을지 모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롤즈는 ㉠의 합의 당사자들을, 인간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를 준수하고 합리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23. 밑글에 제시된 롤즈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민주 사회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 인종 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교육법 조항 하에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단,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빈곤층의 자녀 중 학교 교육 대신 노동을 택하는 비율이 중산층 자녀의 노동 선택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 B국은 출생 신분에 따라 귀족, 중인, 노예라는 세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귀족 계급만이 참정권을 갖고 이동과 거주 자유를 누린다. 중인 계급은 거주 지역이 따로 분리되며 귀족 계급 거주지에 살 수 없다. 귀족 계급은 노예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 C국은 국민의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한다. 빈곤층을 위한 교육·보건 정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할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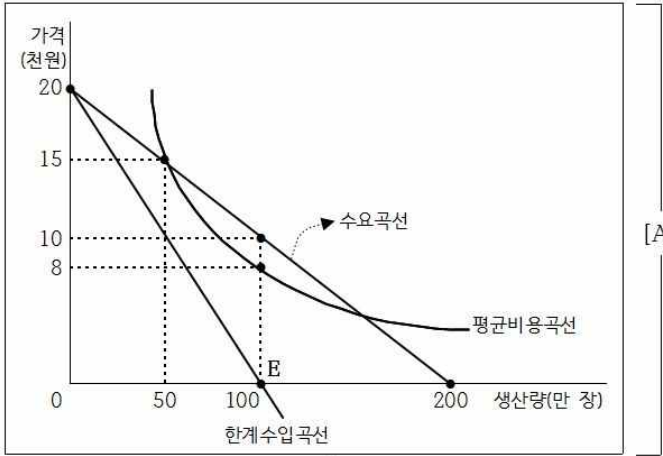
- ①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유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② A국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③ B국은 거주 자유, 정치에 대한 권리가 출신에 따라 제한되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④ C국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하므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⑤ C국은 사회 경제적 지위 차로 인해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 생산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갖는 상품을 정보재라고 하는데, 책이나 음반, 영화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정보재를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보재의 내용인 정보나 지식은 비경합적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으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등대, 교량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게 비배제성을 띤다. 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 과연 정보재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음악 CD를 제작하는 경우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단 제작을 마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공CD 비용뿐이므로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쟁 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재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 따라서 가격 설정자인 독점 기업에게,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묻는 것은 ㉠ 무의미하다. 독점 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을 수요 곡선 상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A]

그렇다면 정보재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음반 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 음반 1장의 가격이 1만 5천 원일 때의 수요량은 5십만 장으로, 가격이 2만 원일 때의 수요량은 0으로,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은 2백만 장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회사의 이윤은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극대화될 수 있는데,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축과 일치하게 된다. 한계 수입 곡선은 앞서 그린 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과 수직축 상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인 반직선이 된다. <그림>을 보면 한계 수입 곡선이 수평축과 교차하는 E점에서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S는 1백만 장의 음반을 만들어 한 장 당 1만 원의 가격에 팔게 될 것이다. 음반 생산량이 1백만 장일 때의 평균 비용은 8천 원이므로, S는 한 장 당 2천 원의 이윤을 얻어 총 20억 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 평균 비용 곡선 : 상품 한 단위 당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
 * 한계 비용 :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한계 수입 :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2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와 비교하여 정보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재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정보재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④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를 드러내어 정보재 시장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 ⑤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보재 시장의 작동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2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량이 50만 장일 때와 200만 장일 때의 한계 비용은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이 1백만 장을 초과하면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 ③ 장 당 가격이 2만 원 이상일 경우 수요가 없으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④ 50만 장을 생산할 경우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으므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장 당 가격이 1만 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가 되므로 생산자는 최대치의 이윤을 얻게 된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1999년 만들어진 N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MP3)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공유된 음악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음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인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①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보재의 비배제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N서비스의 활성화는 음반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서비스는 일종의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방식은 독점 시장의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 ⑤ 음악 파일은 추가적 생산 비용이 없으므로 음반 회사의 수입과 N서비스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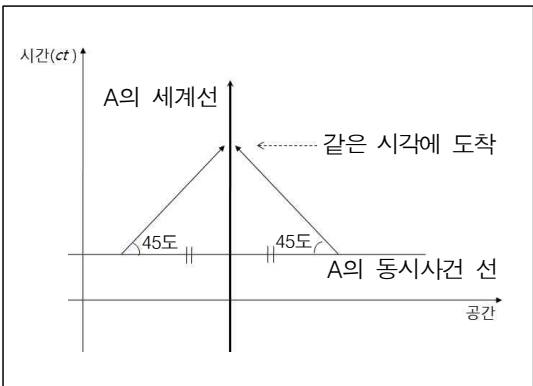
27.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불가능(不可能)하다
- ② 불가피(不可避)하다
- ③ 불필요(不必要)하다
- ④ 불투명(不透明)하다
- ⑤ 불확실(不確實)하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인 데 비해,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4차원 시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로축은 공간으로, 세로축은 시간으로 정한 2차원 시공간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다.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상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간 축도 공간 축처럼 길이 차원을 갖도록 빛의 속도를 곱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세로축은 빛의 속도(c)×시간(t) 축으로서 ct로 표시한다. 2차원으로 표현한 시공간 그림에서 한 점을 사건(event)이라고 하며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궤적을 세계선(world line)이라 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며,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에 비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표현된다. 세로축에 빛의 속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항상 속도가 일정한 빛은 45도의 직선으로 표현된다. 빛의 속도보다 느린 물체의 세계선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기울기가 커서 시간 축에 가까운 선이며,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적으로 존재할 경우 45도보다 기울기가 작아서 공간 축에 가까운 선으로 표시된다. 전자를 시간 방향 곡선(timelike curve)이라 부르며, 후자를 공간 방향 곡선(spacelike curve)라고 한다. 이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선이지만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직선이 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곡선이 된다.



<그림>

이러한 시공간 개념에서 ‘동시사건’은 새롭게 이해된다. 동시사건은 같은 시각에 벌어진 사건들로, 특정 시각에 정지한 관찰자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서로 반대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빛의 속도로 관찰자 A를 향하여 각각 신호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 관찰자가 두 신호를 같은 시각에 받았다면 두 지점에서 신호를 보낸 각각의 사건이 동시사건이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에게 이러한 동시사건들은 특정 시각에 공간 축과 평행한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A의 동시사건 선들은 A의 입장에서 특정 시각에서의 공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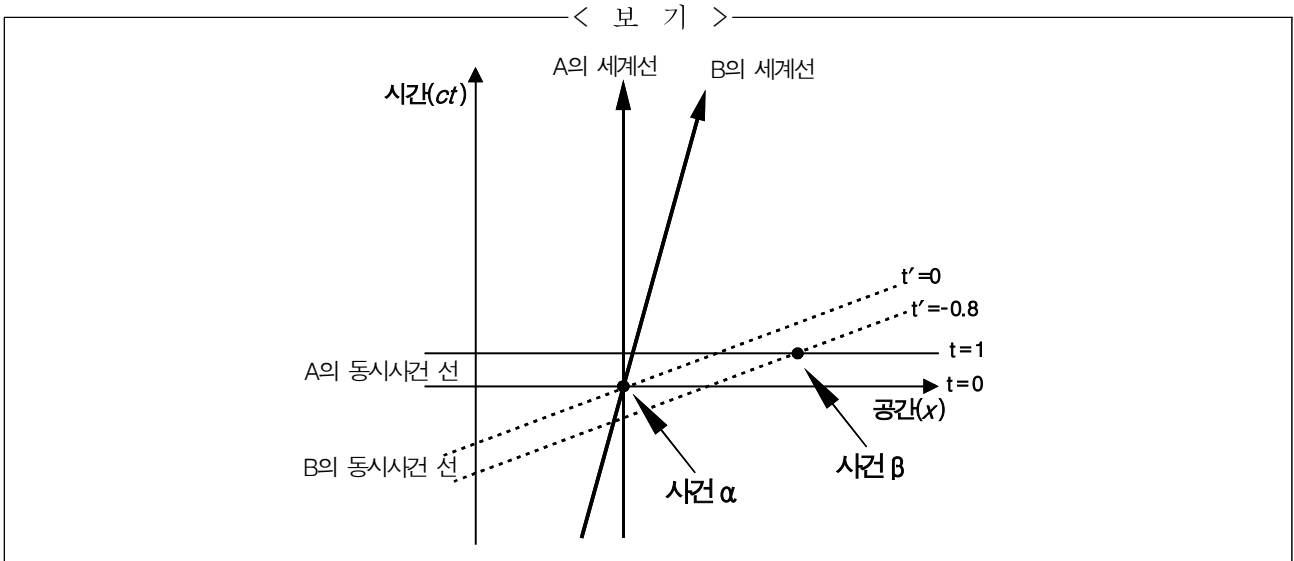
이와 달리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세계선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수직선에 비해 공간 축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기울기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큰 직선으로 표시된다. 이때 움직이는 관찰자의 동시사건 선은, 세계선이 시간 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만큼 공간 축에 수평인 선이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어진 각도의 선이 된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좌표계는 정지한 관찰자와 같이 직교하는 좌표계가 아니라, 시간 축과 공간 축이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서로 교차하는 좌표계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동시사건들이 다르며, 심지어 관찰자들이 인식하는 사건들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게 된다. 가령 정지 관찰자 A에게 사건 α가 t=0에 발생하고, 사건 β는 t=1에 발생하여 사건 α가 사건 β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B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동시사건 선이 B의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기 때문에, 사건 β가 포함된 동시사건이 사건 α가 포함된 동시사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건들의 순서가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② ‘시공간’ 개념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 ③ 실제 세계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을 모두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 ⑤ ‘시공간’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4차원 공간이다.

29. <보기>는 [가]를 2차원 시공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게 사건 α는 동일한 시공간의 사건이다.
- ② A와 B에게 사건 β는 사건 α보다 먼 공간의 사건이다.
- ③ A에게 사건 순서는 α→β, B에게 사건 순서는 β→α이다.
- ④ A의 입장에서 t=1일 때 사건 α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 ⑤ B의 입장에서 t'=0일 때 사건 β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30.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시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겠군.
- ② 2차원 시공간 그림에는 물체 하나의 운동만을 표시할 수 있겠군.
- ③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의 다른 시각의 ‘동시사건 선’은 서로 직교하겠군.
- ④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이 되겠군.
- ⑤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세계선’과 ‘동시사건 선’의 교차각은 관찰자의 속도에 비례하여 커지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진(長津) 땅이 지붕 넘어 넘석하는* 거리다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
 기장감주에 기장차떡*이 혼한 데다
 이 거리에 산골 사람이 노루 새끼를 다리고 왔다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에*를 입고
 노루 새끼를 닮았다
 노루 새끼 등을 쓸며
 터 앞에 당콩 순*을 다 먹었다 하고
 서른 닷 냥 값을 부른다
 노루 새끼는 다문다문* 흰 점이 백이고 배 안의 털을 너슬너슬* 벗고
 산골 사람을 닮았다

산골 사람의 손을 훑으며
 약자*에 쓴다는 흥정 소리를 듣는 듯이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

- 백석, '노루 - 함주시초(咸州詩抄) 2' -

- * 넘석하는 : 넘어다보이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 만큼 가까운.
- * 기장감주, 기장차떡 : 기장으로 만든 식혜와 찰떡.
- * 막베등거리 : 막베(거칠게 짠 베)로 만든, 등만 털을 만하게 만든 홑옷.
- * 막베잠방등에 : 막베로 만든,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 * 당콩 순 : 강낭콩 순.
- * 다문다문 : 사이가 배지 않고 드문 모양.
- * 너슬너슬 : (굵고 긴 털이나 풀 따위가) 부드럽고 성긴 모양.
- * 약자 : 약재.

(나)

- [A]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 [B]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 [C]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 [D]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깃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니듯
[E]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형식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이질적인 공간을 병치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백석의 시에는 '보는 주체'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화자가 눈여겨보는 대상들이 작품의 전경이 된다. '보는 주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들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대상들의 외적 경계를 허물고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눈을 가진 화자는 마침내 자신과 대상, 대상과 대상들 간의 근원적 동일성을 발견하거나, 대상과의 감정적 유대에 이르게 된다.

- ① '장진 땅이 지붕 너머 넘석하는 거리',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관찰이라 할 수 있다.
- ②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는 화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상으로 작품의 전경이 되고 있다.
- ③ 화자가 대상과의 동일성을 발견했음이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을 입고'에서 드러난다.
- ④ '노루 새끼 등'을 쓰는 '산골 사람', '산골 사람의 손'을 훔는 '노루 새끼'는 대상들 간의 동일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는 '노루 새끼'에 대해 화자가 감정적 유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나)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낮은 산’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낮은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C]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낮은 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조하여 ‘낮은 산’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E] : [A]를 반복적으로 변주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는 건주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청한다. 김영철은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종군했다가 포로가 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오랑캐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구해 내 건주의 농사일을 맡기고, 제수와 혼인시킨다. 영철은 두 아들 득북과 득건을 얻는다. 그 후 영철은 명나라 사람인 전유년과 함께 등주로 달아나 그의 누이동생과 혼인하여 또다시 두 아들을 두지만, 결국 조선 사신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다.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錦州)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陣中)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네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다.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다. 내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네게 건주(建州)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다. 네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네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 갔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다. 네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 지금 까지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홉 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主公)께서는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 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잎담배 이백 근을 짓값으로 치렀다.

이때 득북(得北)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

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득복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 와 영철을 대접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럽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 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십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유럽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 아라나는 홍타이지에게 영철의 지난 일을 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손을 들어 남쪽을 가리켜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영철은 본래 조선 사람인데, 팔 년 동안은 우리 백성이었고 육 년 동안은 등주(登州) 백성이었다가 이제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 조선 백성 또한 우리 백성이다. 더구나 큰아들이 군중에 있고 작은아들은 우리 건주에 있으니, 부자가 모두 우리 백성인 셈이다. ㉡ 저 등주라고 해서 어찌 우리 백성이 될 수 없겠느냐? 내가 천하를 얻음 이로부터 시작되리니, 이 사람이 온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홍타이지는 영철에게 비단 열 필과 몽고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영철은 감사의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아라나에게 주어, 제 목숨을 살려 준 은혜에 보답하고 말을 흠뻑던 젖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홍타이지가 말했다.

“영철은 자기 잘못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 할 만하구나.”

이에 그 말을 아라나에게 주고, 영철에게는 다시 노새 한 마리를 주었다. ㉢ 영철은 자기가 타던 말을 득복에게 주며 돌아가 득복에게 주라고 했다.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럽이 영철에게 말했다.

“금주에서 네 젖값을 치르기 위해 내놓은 일담배는 호조(戶曹)의 군수 물자이니, 네가 갚도록 해라.”

영철이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나자, 호조에서 관향사(管餉使)*에게 공문을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을 받아 내라고 독촉했다. 영철은 노새를 팔고 가산을 모두 털었지만 겨우 그 절반밖에 낼 수 없었다. 나머지 일백 냥을 마련할 길이 없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부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슬피 여겼다.

이에 앞서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영철의 어머니는 남편의 옷으로 초혼제(招魂祭)를 올리고자 그 옷가지를 남겨 두었다. 영철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안주로 갔다. 안주성에 올라 사망을 두루 돌며 호곡하면서 부친의 혼을 부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 “내가 죽거든 꼭 이 옷을 함께 묻어다오.”

마침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영철은 아버지의 옷을 함께 묻어 장사를 지냈다.

영철은 의상(宜尙), 득상(得尙), 득발(得發), 기발(起發)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네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영철은 이십여 년 간 성을 지키다가 여든넷에 죽었다.

— 홍세태, ‘김영철전’ —

* 홍타이지 : 청나라 태종.

* 봉황성 : 압록강 서쪽에 있는 성.

* 관향사 : 국경 방비에 쓰일 군량을 관리하기 위해 평안도에 설치한 관직.

* 자모산성 : 평안도 자산군에 있는 산성.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이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행복한 결말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환상적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영철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라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② ㉡ : 홍타이지는 등주마저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군.
- ③ ㉢ : 둘째 아들인 득건을 생각하는 영철의 마음이 나타나 있군.
- ④ ㉣ : 저승에서라도 전사한 남편과 함께하고픈 어머니의 소망이 표출되어 있군.
- ⑤ ㉤ : 건주와 등주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영철의 마음이 드러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김영철의 일생은 명(明)과 후금(後金)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의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종군의 괴로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족과의 이산의 슬픔, 서민에게 부과되었던 군역의 가혹함, 지배층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품 속에 두루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 소설이 거둔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① 영철이 유림을 따라 또다시 종군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조선군의 출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
- ②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꾸짖는 말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끼어 고통받던 조선 사람들의 삶의 질곡을 엿볼 수 있어.
- ③ 영철과 네 아들이 자모산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는 일에 응하는 장면은, 혹독한 군역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④ 영철이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의 나라로 귀국한 것은, 그가 가족 간의 도리보다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호조가 관향사를 독촉하여 영철에게서 일담배 값으로 은 이백 냥을 받아내려 하는 장면은, 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외면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는 옛데흐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나)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나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논고

- 황진이 -

(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터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랴
출하리 **물그의** 가 빅길이나 보랴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흐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흐야 꽃즈음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흐야 **꿈**의 님을 보니
옥 그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흐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초장과 중장의 대구를 통해 '청산'과 '유수'의 유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청산'을 자신과, '녹수'를 '님'과 동일시하여 대비하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주목한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물의 흘러가는 속성에서 각기 다른 시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경과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님'의 상실을 전제로 한 애정 시가의 경우 '나'가 있는 장소인 '여기'와 '님'이 있는 장소인 '거기'가 구별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님'은 제자리에 있고 '나'가 '거기'에서 이탈한 경우와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님'이 '여기'에서 이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감상해 본다면 '님'의 상실은 _____ [A] _____ 이라는 상황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나'가 '거기'로 돌아갔기 때문
- ② '님'이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③ '나'와 '님'이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
- ④ '나'가 '여기'를, '님'이 '거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⑤ '나'와 '님'이 '여기'에서 '거기'로 이탈했기 때문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속미인곡(續美人曲)>에는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시적 화자는 임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수직적, 수평적 공간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화자의 노력은 ‘꿈’이라는 반(半)현실적 공간으로까지 연장되지만 실패하고, 결국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 초월로 극복해 보고자 한다.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노력과 사념은 공간의 이동과 맞물려 점차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시적 화자의 고뇌와 절망 역시 점차 깊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 ① ‘내 멍읍 둘 디 엇다’는 것은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내면 상태로 볼 수 있군.
- ② 시적 화자가 ‘높은 퇴’를 오르는 것은 임과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수직적 극대화로 볼 수 있군.
- ③ ‘물기’에서 ‘님다히 소식’을 아득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임을 사랑하지 않게 된 화자의 마음으로 볼 수 있군.
- ④ ‘썸’에서 임과 온전히 재회하지 못하는 것은 반현실적 공간에서 확인되는 시적 화자의 절망으로 볼 수 있군.
- ⑤ 시적 화자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뇌와 절망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비극적 초월로 볼 수 있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젠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명칭히 앉아 있지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넌을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젠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린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엔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젠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홍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혼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권
말